

Sawatdee Krop? 지난 2 개월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태국에 들어가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저의 상황을 주목하시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여시는 것과도 같은 은혜의 기적을 베푸셔서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여셔서 현재 저는 태국 땅을 다시 밟게 되어 태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태국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10 월 중에 주한태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비자를 주는 상황으로 갑작스런 상황의 변동이 생겨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은퇴 비자의 길이 열리고 또 11 월 중에 특별기를 4 번이나 띄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두번째 비행기를 타고 마침내 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즈음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1 년짜리 장기 비자가 허락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분의 도우시는 손을 힘입어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분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번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비자가 거절을 당하던 가운데 받게 된 것이라서 더욱 귀하게 생각됩니다. 그 동안 저를 위하여 위에 계신 우리 아빠께 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동아시아에서의 사역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저는 이때에 태국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당분간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동아시아에서 하는 사역을 완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의 주인께서 다시 기회의 문을 여시게 되면 거기에도 또 다시 들어가서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다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온라인으로 거기에 남아 있는 충성된 제자들에게 매일 목상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만을 계속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면하여 직접 보면서 돌보아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으로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은 결국 그분이 거기에서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현재 태국에서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태국 정부가 지정한 방콕의 한 호텔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격리 해제가 되려면 오는 11 월 27 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격리 해제가 될 때에 제가 하려고 준비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그분의 공동체 하나를 여기 방콕에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은 지난 3 월부터 시작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미루어진 사역입니다. 둘째는 지난 10 월 중으로 예정되었다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계획이 취소되었던 그분의 공동체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와 이어지는 성경 세미나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치앙마이 동부에 있는 파야우 성경신학교에서 성경 과목 및 기타 요청하는 과목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원해 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원래 지난 7 월부터 시작하기로 되었던 것인데 역시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지연된 일입니다. 아마도 이번 겨울 학기부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께 기억나실 때에 간곡하게 탄원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빠른 시일 안에 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도 탄원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제가 사역의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도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깊이 깨닫게 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수한 난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분이 주신 기회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더욱 충성스럽게 그분을 섬길 것을 조용히 마음 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이와 같은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는 말을 기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